



살롬!

한국의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이곳 태국도 다시 코로나 19가 재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태국정부도 긴장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접경국인 미얀마에서도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매싸이를 비롯한 모든 국경지역에 특별 단속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넘어오는 미얀마 사람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라 하네요. 이곳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19가 소강상태여서 8월 한 달 자유롭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 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 거뜬히 코로나 19를 물리치길 간절히 기도하며 9월 기도편지 띄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 8월에도 변함없이 매 주 수요일 산에 올라 빠마이 아이들과 함께 하룻밤 머물다 내려왔습니다. 빠마이를 오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지만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한들 이렇게 환영받고 사랑받는 곳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매주 빠마이를 오를 때마다 한결같이 가슴으로 우리를 맞아 주고 밝은 미소로 두 팔 벌려 맞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치지 않고 빠마이를 향하는 원동력이자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치앙라이 시내에 있는 한식당인 수라 식당으로 전체 아이들 초청하여 삼겹살 파티를 하였고 특별히 이번 학기 새롭게 함께 하는 날리카와 짜르는 치앙라이 시내를 처음 방문하는 걸음에 높은 건물도, 도로를 밝히는 가로등도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나 봅니다. 8월 들어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빠마이 오르는 산길이 황토 빨길이 되어 미끄럽고 깊이 파여 우리의 걸음 힘들게 하였어도, 천둥 번개 동반한 소나기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 깊은 산중 칠흑 같은 어두움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마다 고사리 손으로 손전등 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연일 내리는 빗줄기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빠마이 담장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도 빠마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감사였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8월에도 현지 아이들 다섯 명과 함께 생활하였고 치앙마이 제 3 한인교회에 주일 설교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신앙관과 세계관 그리고 생활수칙을 가르치며 매일 한 구절 암송을 시켰고 매일 저녁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세 아이들은 요한복음 1장을 전부 암송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요한복음 3장을 암송 중입니다) 내내 또한 주일예배 설교 통역을 잘 하고 있고요. 치앙라이 한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7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로 한국에 출국했을 때 외에는 지정석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 치앙마이 제 3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고 치앙마이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없어도 이 아이들이 암송으로 제 설교를 대신하면 되겠다 싶었고 또 그렇게 암송하여 치앙라이 한인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8월을 보내며 나름 열심히 사역에 임하다보니 좀 무리를 했던지 몸살감기로 며칠

을 보내며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는 후원의 손길 덕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진정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9월은 일 년 비자 연장을 하는 달입니다. 30년째 비자 연장을 해도 여전히 비자 연장할 때 마다 긴장이 된다는데 저희야 오죽 할까요? 비자 연장 잘하고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가는 모든 소식과 지경에 풍성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 28)

<기도제목>

1. 코로나 19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태국, 온 세계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기도합니다.
메콩강 공동체와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 믿음과 건강으로 자라게 하소서.
2. 2020년 치앙라이 한인교회 주제
“영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를 이루어 가소서.
치앙라이 한인교회 흠어진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3. 2020년 파송교회, 후원교회, 후원 기관과 모든 개인 후원자의 지경에
성령님 기름 부으사 코로나 19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4. 코로나 19로부터 예영, 예은, 예슬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영이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과 건강,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은이 방콕에 머물며 믿음의 지정석과 온라인 수업을 받습니다.
믿음과 건강,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슬 11학년 시작하였습니다. 지혜와 건강으로 잘 보내게 하옵소서.
5. 코로나 19를 통해 저와 아내에게 말씀과 기도로 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8월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맡게 된 메콩강 공동체 부대표 직임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9월까지 연장된 태국 국가 비상사태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일 년 비자 연장 잘 받게 하옵소서.

태국 치앙라이에서
노석희 길영순 예영 예은 예슬 선교사 올림